

# Global Goings-on

## 중국

### ■ 중국 1자녀 정책을 재고할 때

- 일부 중국인들은 30년 내내 이 억압적인 정책이 폐지되기를 원하고 있음. 문제는 자녀를 많이 낳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적게 낳는 데 있음.
- 올해 3월 양 지주씨는 자녀를 한 명 더 낳았다는 이유로 북경의 법 강사직에서 해고되었음.
  - 그는 1자녀 정책을 어길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남자 아이를 얻고 싶어했음.
  - 지난 30년간 부부에게 한 자녀만 두도록 강제하고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혹독한 방법을 사용해 온 나라에서 양 지주씨의 이야기는 드문 경우는 아님.
  - 양씨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알려지면서 심지어는 국영 언론에서조차 동정심을 얻음.
- 1자녀 정책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 정책의 실행 이후 태어난 자녀들이 점점 증가하는 연금 수급자들을 부담해야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1자녀 정책이 계속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.
  -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출산율은 실제 출산율보다 훨씬 높다고 함.
  - 중국정부는 이제 출산율을 억제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함.
- Southern Weekend지는 이청군은 지난 25년간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산율이 평균보다 낮다고 보도함.
  - 이청군의 남녀 성 비율 또한 평균보다 불균형하여 남자의 비율이 높음.
  - 다른 지역에서는 남자 아이에 대한 전통적 선호로 인해 여자 아이들에 대한 낙태가 성행해 왔음.
- 많은 지역에서 한 가정 두 자녀 정책과 비슷

- 한 정책들이 등장해 왔음.
  - 시골 거주민들은 첫 째 자녀가 여자일 경우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.
  - 소수 인종들도 1인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음.
  - 많은 지역에서 부모 자신이 형제가 없을 경우 자녀를 둘 까지 가질 수 있음.
  - 가족정책 고위 담당관에 의하면 2007년 현재 1자녀 정책이 적용된 범위는 전체 인구의 40% 미만임.
- 그러나 중국정부는 1자녀 정책을 당장 폐지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음.
  - 9월 25일은 1자녀 정책이 처음 시행된 때로 공산당의 “공개 서한”의 30주년 기념 식임.
  - 공개 서한에서는 1자녀 정책을 30~40년 쯤 풀 것을 얘기해 일부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책이 폐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.
  - 그러나 2월 한 관료는 적어도 2015년까지는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.
- 소문에 의하면 11월에 있을 인구조사가 양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면조치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함.
  - 한 경찰고위직에 의하면 인구조사원들은 가족계획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가구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함.
  - 보통 가구원 등록증은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만 양씨의 둘째 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교부될 수 있었음.
- 도시의 경우 이 벌금은 연평균 임금의 다섯 배에서 열 배 수준이었음.
- 그러나 관료들은 소문을 막기 위해 “벌금이 여전히 부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.
-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출산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함.
  - 학자들은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변함 없이 사용되어 온 공식 발표된 출산율 1.8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함.
  - 최근의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여성들이 정부가 규제한 대로 자녀를 낳았다면 출산율은 1.47일 것이라고 함.
  - 중국정부가 보다 높은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은 인구조사에서 누락된 “블랙 칠드런”(1자녀 정책을 어기고 낳은 자녀를 이렇게 부름)의 수를 감안한 것임.
  -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서는 이를 반격하며 누락의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함.
- 중국은 노령화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으나 저출산으로 인해 그 영향이 관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음.
  - 중국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급히 바꾸어 출산율을 재생산 수준인 2.1로 올려야 된다고 제안함.
  - 문제는 중국인들에게 자녀를 더 가지도록 권하는 것.
  - 도시와 부유한 시골지역을 조사한 결과 여성들의 희망 출산율은 1.47 정도.
  - 양씨 또한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아

내는 반대하고 있음. 양씨의 둘 째는 딸이  
었음.

2010년 8월 19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[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6846390?story\\_id=16846390](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6846390?story_id=16846390)〉

## 돼지 독감이 사람들에게 감염된 원인

- 8월 6일 연구진에 따르면 H1N1 바이러스는 변형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트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성이 될 수 있는 지를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표시가 되었음.
- H1N1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처음 발견된 것은 2009년 4월이었으나 유전자 연구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으며 돼지들 사이에서 번진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 냈.
  - 위스콘신-매디슨 수의학 대학원의 요시히로 카와오카씨 - “돼지독감 바이러스는 이런 변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복제되기가 쉬었던 것입니다. 이 변형에 대한 지식은 미래에 독감이 대유행 될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.”
- 일반적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

으로 옮겨 가 사람 세포에서 효율적으로 증식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특정 위치에 두 가지 아미노산(리신과 아스파라긴)이 있어야 함.

- H1N1 바이러스의 경우엔 그 특정 위치에서 두 아미노산을 찾을 수 없어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음.
-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카와오카씨와 연구진은 리신 아미노산이 바이러스의 다른 위치에 있는 것과 그 위치에서도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서 효율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발견함.
- 6월 초 세계보건기구는 돼지독감의 활동이 거의 빈약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발표함.
- 현재까지 신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천식, 당뇨,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과 아동, 임산부들이 H1N1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당함.

2010년 8월 6일 / China Daily

〈원문 링크: [http://www.chinadaily.com.cn/life/2010-08/06/content\\_11107426.htm](http://www.chinadaily.com.cn/life/2010-08/06/content_11107426.htm)〉

## 미국

### ■ 병실 전쟁 : 병원 합병

- 첫 눈에 병원사업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음.
  -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고 많은 경우 자산단체가 운영함.
  - 병원경영에도 의사들이 막강한 힘을 쥐고 있고 환자들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음.
  - 급속한 의료기술의 진보는 비용을 끊임없이 올리는 반면 정부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반면, 많은 투자회사들이 병원을 사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음.
  - 7월 19일 미국 자산회사인 TPG와 Carlyle Group은 17억 달러에 호주의 병원체인인 Healthscope 인수에 성공함.
  - 3월 싱가포르에선 인도의 병원체인인 Fortis Healthcare가 아시아 6개국에서 1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Parkway Holdings를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5월엔 말레이시아 국가자산기금인 Khazanah가 8억3천5백만 달러에 주식의 과반수를 인수하려는 제안을 제출한 상황임.
  - 6월 Vanguard Health Systems는 디트로이트 의료센터병원들을 4억1천7백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3월 Cerberus Capital

Management는 보스톤에 소재한 비영리 병원 체인인 Caritas Christi를 8억3천만 달러에 인수했음.

-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음.
  - 부유한 국가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재력이 증가하고 있음.
  - 문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그 증가가 느리다는 점임.
- 투자자들은 지역의 수요와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이 부족한 고급 병원들을 앞다퉈 인수하고 있음.
- 미국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이유는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 때문.
  - 새로운 의료법안으로 인해 병원에 지급되는 지불액은 줄어드는 반면 병원은 비싼 정보기술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률이 줄어들 전망.
  - 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 개혁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형 병원들이 선호될 것이라고 전망함.
  -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비영리 병원들에 대한 영리체인들의 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.
- 많은 병원들이 점점 더 복잡해 지는 기술과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이 부실한 병원들은 인수될 것임.

- 병원을 인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자들은 큰 수확을 거둘 것임.
- 2006년 투자회사에 인수된 미국의 대형 병원체인인 HCA는 지난 1월 투자자들에게 배당수익으로 17억5천만 달러를 나눠 주었음.
- 그러나 오바마 의료개혁은 미국 내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 투

자자들은 더 건강한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설 것임.

-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아프리카 시장이 대두되고 있음.

---

2010년 7월 22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 링크: [http://www.economist.com/research/articlesBySubject/displaystory.cfm?subjectid=348945&story\\_id=16646310](http://www.economist.com/research/articlesBySubject/displaystory.cfm?subjectid=348945&story_id=16646310)〉